

창립 10주년 기념회 축사



존경하는 남궁 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오 명 사장님, 경 상현 회장님과 내빈 여러분!

'87년 4월 30여개의 정보통신역무 제공 업체가 중심이 되어 창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이제 170여개의 회원사를 가진 우리 나라의 대표적 정보통신산업협회로 성장하여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정보사회라는 거대한 변화의 조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세계각국은 남보다 한발 앞서, 정보사회의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무한경쟁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 대열에의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사회 모든 분야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미래 유망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지원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과업은 정부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과 기업 모두가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정보화의 진정한 주체임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에만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 산업계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품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국내의 대표적인 언론사와 민간 정보통신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산업과 기술발전 동향을 입수·전파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진흥협회는 명실공히 정보통신업계의 대표적 단체로서 여러 회원사와 호흡을 같이하면서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선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진흥협회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10. 30.

정 보 통 신 부
차 관 박 성 득